

• 테마기획 II

경북대학교의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사례

김정희 | 경북대학교 기획처 교육행정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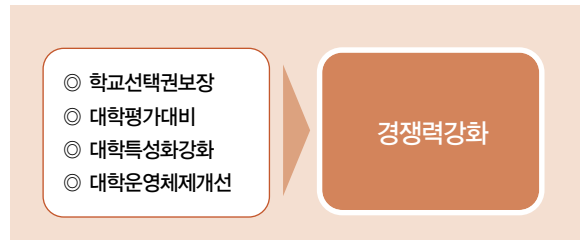
I. 대학정보공시 시범운영 추진배경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인에게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질적 수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대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에게 대학의 현황이나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이 있다. 그동안의 정보공개가 청구에 의한 수동적 공개의무였다면 대학정보공시는 법적 의무로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일정한 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정보공시제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경북대학교에서도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더 나아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고자 대학정보공시 시범운영에 참가하게 되었다.

II. 대학정보공시제의 기대효과

이름도 생소한 대학정보공시제의 기대효과라고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



부모, 정부, 산업체에 대학의 교육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학선택이나 직원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 막연한 주위의 평판이나 권유가 아니라 대학별로 비교 가능한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소신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요즘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고등교육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학평가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교육선진국들은 대학평가를 통하여 대학을 브랜드화하고 세계의 많은 고등교육인구를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최근 우리 정부는 대학평가기능을 민간에 위임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대학의 주요정보는 모두 공개되므로 그동안 대학을 평가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정보의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며 대학평가기능의 민간위임 역시 그리 먼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다.

셋째, 대학정보공시제는 학교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특

성화 계획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의 특성화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근래 대학구조개혁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대학가의 주제는 대학특성화이다. 단지, 특성화계획을 공시한다고만 해서 대학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학과별 정보와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학과별 충원을 및 취업률 등이 공개되어 강점분야와 취약분야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학이 강점분야를 더욱 육성하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넷째, 대학정보공시제는 애초에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책으로서 정부의 지시가 아닌 시장논리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수준이나 위치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 수행여부의 판단이 용이해지고 이는 곧 대학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대학정보공시제의 장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대학경쟁력강화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어찌 보면 그동안 숨기기에 급급하거나, 부풀리기에 힘써왔던 대학의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학도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10~15개 대학을 선정한 뒤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 대학 역시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와 교수들의 연구성과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Ⅲ.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 과정

각 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학교의 주요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07.5.25.)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07년 6월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 추진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하여 시범운영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지방의 국립대학으로서 대학의 실정을 대외적으로

세세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의 변화 요구에 먼저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대학교는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4년제 일반 국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대학정보공시 시범운영 10개 대학에 선정되었다. 여러 대학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의 각 유형별 대학들이 시범운영 10개 대학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대학정보공시제 세부공시항목 개발 및 정보공시모형 구축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선정되어 시범운영 10개 대학과 한 팀을 이루었다.

교육부, 전담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범운영 10개 대학은 몇 차례 운영 협의회를 거쳐 법적공시의무항목인 13개 항목의 세부항목을 확정하였고,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에 걸맞은 공시양식을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대학과 거거서 산출된 정보에 단일한 기준과 일정한 양식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진 13개 분야 정보공시항목의 세부 정보공시내용은 <표1>과 같다.

50여 개의 세부 항목들은 각각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시된다. 그러나 시범운영기간 동안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어려움이 있어 우선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정보공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학별로 수합된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였고 홈페이지 공시 전 우리대학과 인하공전의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 시연회를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정보공시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 10개 대학 중 남도대학을 제외한 9개 대학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대학정보공시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대학원생의 정보공시는 지금 현재 2단계 정보공시 시범운영 중에 있다.

표 1.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

정보공시항목	정보공시내용	공시기관	공시횟수	공시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 학교규칙(학칙)	대학	수시	수시
	2.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에 관한 학칙 외 제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	대학	연 1회	3월
	2. 학점·평가기준	대학	연 1회	3월
	3.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3월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1. 대학입학(편입학)전형시행계획	대학	연 1회	2월 또는 8월
	2. 모집요강(학과(부)별 입학정원 포함)	대학	연 2회	8월, 11월
4. 총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1. 신입생 총원율	대학	연 1회	9월
	2. 학생 총원율	대학	연 1회	9월
	3.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9월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9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9월
	2.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9월
	3.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9월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 전체 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 1회	9월
	3. 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9월
	4. 외국인 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5.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1.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대학	연 1회	9월
	2. 저역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9월
	2.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9월
	3.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9월
	4.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5.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6.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7.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8.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9. 산학협력단회계 현황	대학	연 1회	9월
	10.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5월, 11월
9. 「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대학	수시	수시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 학교 발전계획	대학	수시	수시
	2. 학교 특성화 계획	대학	수시	수시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 연구비 수혜실적	대학	연 1회	9월
	2.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	연 1회	9월
	3.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9월
	4.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9월
	5.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9월
	6.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9월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 장서보유 현황	대학	연 1회	9월
	2.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9월
	3.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 1회	9월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 정관	대학	수시	수시
	2. 법인의 지배구조(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3. 교지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9월
	4. 교사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9월
	5.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 1회	9월
	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7.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8.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9월
	9.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그림 1. 경북대학교 정보공시 홈페이지 화면

IV. 대학정보공시제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 ◎ 객관적 검증체제(취업률) 구축
- ◎ 경쟁격화와 기초학문 소외 예방
- ◎ 지방소재대학 운영난 가중 우려

정보공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보의 타당도와 신뢰도이다. 이번 대학정보공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제일 신경을 쓴 부분 역시 정보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인데 우선, 모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성자와 확인자, 연락처 등을 명시하였고 홈페이지 내에서도 공시항목별 담당자 등을 공개하여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는 정보공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2차적 검증시스템을 거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나갔다.

그러나 취업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해나가야 할지 무척 애매하다. 취업의 종류와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또, 정규직의 취업률만 조사한다고 하

더라도 자료를 어떤 식으로 수합하여 어떻게 검증을 할지가 문제였다. 취직을 하면 의례히 등록되는 의료보험증의 제출을 통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아직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한 상태이다.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사회이슈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대학정보공시제에 있어서 신입생 총원율과 더불어 제일 민감하고도 관심의 대상인 정보가 취업률인 것을 감안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역시 취업률의 검증 문제일 것이다. 어느 한 항목의 정보라도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대학정보공시 항목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은 대학정보공시제가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정책 추진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시장원리에 의해 서열화 되고 정량화된 지표에 매달려야 하는 대학의 모습에서 예상되는 파장 또한 클 것이다. 현재도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대학들의 학생모집 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기초학문 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대학들 역시 이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른바 대학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대학만이 갖는 자유로운 사고를 저해하고 각 대학의 독특한 문화나 자율성 등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는 속담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의 진정한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희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기획처 기획과에 재직 중이다.